

탐의 진화

② 석가모니부처님의 열반과 불탑 조성

지난 호에는 석가모니부처님 열반 이전의 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불탑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불사리탑을 의미한다.

1) 전문성왕의 장례법과 불사리탑

석가모니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45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중생교화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80세가 되던 해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다. 그러자 아난다는 장례식 절차와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께서 전문성왕의 장례식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부처님의 장례식은 전문성왕보다 더욱 여법하게 하라고 유언하셨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아난다는 위시한 그 당시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유흔에 따라 전문성왕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모셨고 불탑을 조성했다.

그러나 전문성왕의 장례법에 대해서는 전하는 경전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특히 한문으로 번역된 한역경전의 경우에는 번역가와 번역시기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경전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반니원경》에는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전문성왕의 장례지내는 법에 대하여 물으니 ‘장례법은 비단으로 몸을 싸고, 겁파육 열장으로 그 위를 반대 방향으로 몸을 싸서 은관에 넣고, 향기름을 겁파육이 충분히 젖을 만큼 붓는다. 그 후에 가래나무, 녹나무, 단향목 장작으로 관을 덮고 다비(荼毗, jhapeti)를 한

면서 전문성왕의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들고 나가 향나무로 장작을 쌓고 관을 장작 위에 올린 뒤 곧 불을 화장을 한다. 관이 다 타고 나면 옥녀보와 주장성신보와 도도성신보는 함께 사리를 거두어서 사거리 가운데 7보로 탑을 세우고 그 속에 안치한다.”(《대정신수대장경》1권 283쪽 상단)고 설하였다.

또, 《반니원경》에는 “금관을 다시 큰 철관 속에 넣어 두고, 화장하여 사리를 거두어 사거리에 탑을 세우고 철관을 세워 표시하고 깃발을 달며 꽃과 향을 올리고 예배하라”고 하였으며, 《대정신수대장경》1권 186쪽 하단 《세기경》의 ‘전문성왕품’에는 “전문성왕의 옥녀보와 거사보, 주정보와 나라의 백성들은 사거리에 칠보탑을 세우니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유순(약 40리)이고, 오색찬란한 7보로 장식한다”(《대정신수대장경》1권 121쪽 상단)고 설한다.

이처럼 그 당시 최고의 이상적인 정치적 지도자였던 전문성왕의 장례법은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의식이었다. 하물며 정치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부처님의 장례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전문성왕의 장례법보다 더욱 여법하게 행하라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유언은 경전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즉 전문성왕의 장례법에 대하여 목욕방법, 염(殮)을 하는 재료, 수량, 유골 안치 순서, 공양물의 내용 등이 경전 번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문성왕 장례법 비교

Table with 8 columns: 구분, 불반니원경, 대루탄경, 반니원경, 장아함경 (유행경), 장아함경 (세기경), 대반열반경, 기세인본경. Rows include: 한역자, 한역시기, 세속재료, 염 재료, 사리 안치방법, 탑 위치, 탑 표시법, 공양물.

다. 다비를 마치고 사리를 수습하여 사거리에 탑을 쌓고, 철관을 세우고, 사리를 안치한 노반을 그 위에 설치하고, 비단 번기를 걸고, 약기를 연주하며, 꽃과 향, 등불로 공양한다. 전문성왕의 장사지내는 법은 이와 같지만 부처님의 장례법은 이보다 더 훌륭하게 해야 한다.”(《대정신수대장경》1권 169쪽 상단)고 하였으며, 《대루탄경》에는 “전문성왕의 몸을 깨끗이 목욕시킨 후에 솜으로 몸을 싸고, 그 다음 담요 500장으로 몸을 감고서 철관에 넣는다. 그리고 향내 나는 기름을 그 위에 부어 뒤 뚜껑을 덮고 꽃을 박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풍악을 울리며 노래하고 춤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염을 하는 재료와 수량은 모든 경전마다 다르게 전한다. 초기에 번역된 《불반니원경》에는 겁파육 10장에서부터 418년에 한역된 《대반열반경》에서의 무명과 모지물로 1,000첩을 감싼다는 내용까지 매우 다양하다.

사리를 안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철관이나 은관 등을 사용하다가 ‘금관-철관-목관’의 3중관에서 ‘금관-은관-동관-철관’의 4중관까지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여러 불교 국가에서 불탑을 건립하고 사리함을 안치할 때 회함으로 해서 3중, 4중으로 보호한 이

진정한 불탑은 역사적 실체의 불사리탑



불탑에 각종 약기를 연주하며 음악공양을 실천하는 인물상이 동황궁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벽화에서 나타난다.



부처님의 열반처 쿠시나가라에 조성된 열반탑



열반탑 옆에 5C경 조성된 열반당



열반당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부처님의 다비를 모시고 사리수습 후 세운 람바르 불탑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에 ‘열반탑’

1.6km 떨어진 곳에서 다비하고

불탑의 상징 람바르 불탑 조성

모든 탑은 사거리에, 쉽게 많이 보도록

유인 것이다.

또한 탑을 건립하는 위치는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사거리에 조성한다는 내용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이 편하고 쉽게 불탑을 찾아 참배하도록 한다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탑의 표시 방법으로는 철관과 표찰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이는 후세에 불탑의 상부에 설치하거나 불당 앞에 막대나 쇠로 깃대모양을 만들고 꼭대기에 금속 등으로 장식하는 것과, 절을 금찰(金刹), 범찰(梵刹), 사찰(寺刹) 등으로 표현하는 어원이 된다. 불탑에 올리는 공양물은 칠보와 꽃, 향, 등불 등 일

반적인 공양물 외에도 일산과 기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산은 부처님 당시에는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불탑 정상의 일산이 후에 중국에서는 둥근 모습만 전래되어 아예 법륜을 상징하는 수레 바퀴 모양의 보륜, 보개 등의 기원이 된다.

불탑에 각종 약기를 연주하며 음악으로 공양하라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국 동황석굴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의 여러 벽화에서 요고, 공후, 비파, 생황, 것대, 배스, 나각, 제금 등을 연주하는 인물상이 불탑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성 감은사지 3층 쌍탑에서 각각 출토된 사리기(사진1) 등에 나타나는 주악상은 남원 실상사의 백장암 삼층석탑, 구례 화엄사의 사사자삼층석탑, 양양 선원원지의 삼층석탑, 양양 진전사지의 삼층석탑, 서산 보원사지의 오층석탑 등에도 표현되어 있다.

2)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처와 다비장

석가모니부처님은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에서 열반에 드셨다. 현재 이곳에는 벽돌을 재료로 하여 조성된 반구 모양의 열반탑이 있다.(사진2) 이 열반탑의 상부에는 평두리는 신성한 곳을 상징하는 사

각형의 난간과 정상부에는 3개의 일산을 조성하고 있다. 그 옆에는 5세기경에 조성된 길이 6.2m의 열반상(사진3)이 모셔져 있는 열반당이 있다. 현재의 열반당은 13세기 이슬람교도들의 침공으로 파괴된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이 열반당으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 석가모니부처님을 화장하고 다비식을 치른 장소에 불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람바르 스투파(Rambhar Stupa)이다. (사진4)

람바르 불탑은 불탑신앙의 대표적 상징이 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사리를 수습한 장소에 조성된 불탑이기 때문에 불교역사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불탑은 기단부의 둘레가 47m이며, 그 위에 세워진 반구형의 탑신 둘레는 34m에 달한다. 높이는 약 15m에 달하는 대형 불탑에 속한다.

1910년 고고학자 히라난다 샤펠리(Hirananda Shatri)에 의하여 발굴 복원 되었으며, 이 때 경전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글·우인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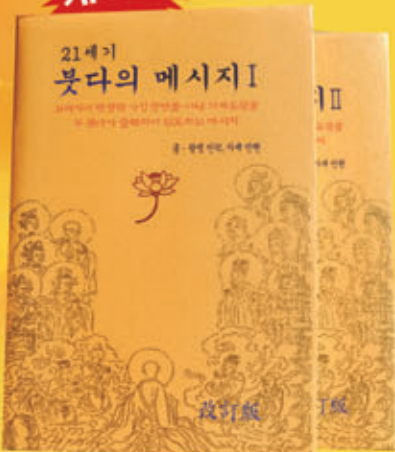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견성은 머나먼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이 책이 여러분을 정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개정판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근간)

서연 이대성 저 (00 대학교수, 철학박사)

“철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엄력(藥力),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도리천궁신동품 중에서)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옥중생을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의 인행(因行)과 서원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업의 과보를 밝혀서 그 과보로 가게 되는 지옥의 실재를 설하고 있는 중요한 대승경전이다. 이 책은 이전 어떤 해설서와도 차원이 다른 영산불교만의 깊이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장보살님의 실재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지장보살본원경 13품을 각 품별로 자세한 해설을 달았고, 지장경을 봉독함으로써 10선을 행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배우고 실행하여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왜 불교인가(근간)

대현 김주영 저 (서울공대 공학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정영실상 수상)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질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완전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체론 생사관 수행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써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역작이다.